

'가르침 따라 살겠다' 공양으로 서원



박태원 교수의

불교를 보는 인생

빛바랜 재수생 시절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수유리 4.19 기념탑 공원 작은 연못가에 앉아 시시껄렁한 잡담으로 젊음의 불안을 쫓고 있었다. 무심코 주위의 작은 돌을 집어 연못 속에 던져 놓고 있는 나에게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와 빙그레 웃으며 조약돌이 가득 담긴 손바닥을 조용히 내밀었다. "감사합니다"며 받아드는 내 얼굴을 다시 미소로 보며 아저씨는 등을 돌렸고, 순간, 나와 친구는 거의 동시에 '어' 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얼굴이 갑자기 확 달아올랐다. 연못에 돌을 던져 넣는 물자각한 행동을 그렇게 따스하게, 그러나 가장 따끔하게 나무라는 그 아저씨의 훈육 방식은 실로 인상적이었다. 나를 미워하는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었기에, 그 나무람은 오히려 엄청난 감동력으로 나를 굴복시켰다.

문화와 문명은 다른 견해들의 경쟁적 대립을 통해 발전해 간다. 개인의 삶도 그러하거나 사회 역시 이견(異見)들의 다툼 속에 발전하고

는 노골적으로 논쟁을 부추긴다. 논쟁 부재는 곧 학문의 정체와 퇴보로 인식된다. 그러나 막상 격렬한 논쟁의 당사자들은 대개 인간적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논쟁을 통해 양자의 장단점이 수렴되면서 보다 온전한 진실이 드러나니 제3자들이 야 반색을 하고 즐기지만, 논쟁 주체들은 상호 심각한 인간적 상처를 주고받기 일쑤이다. 겉으로야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 진리를 위한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내심은 그렇게 답답할 수는 없는 것이 솔직한 인간사일 터.

어차피 다른 생각들과 얽혀 살 수 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이견 대립이 지닌 성숙·발전과 고통·파괴의 두 얼굴, 피하지나 향상의 길이 막히고, 맞닥뜨리자니 다툼과 아픔, 상처가 싫다. 어찌해야 하는가. 절묘한 해법은 없는가. 있다. 부처님이 설하신 무아(無我)의 도리가 활로를 열어준다. 세상이 이견 대립이 없을 수 없고, 논쟁도 필요하다. 문제는 이견을 대하는 태도, 논쟁에

참불자의 길 공양(供養)

불자들은 절에 갈 때 흔히 "불공 드리러 간다"고 말한다.

"불공(佛供)을 드린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부처님께 공양(供養)을 올린다는 것이다. 무엇을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것인가. 법당에서 부처님께 절을 하는 행위에서부터 향 피우고, 촛불 밝히고, 복전함에 시주하고, 찜이나 떡 같은 음식을 불전에 바치는 모든 것이 바로 공양(供養)이다.

불자들이 절에 나가 이처럼 공양을 올리는 이유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서원을 다지고, 공덕을 쌓아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혹독한 고행으로 쇠약해진 석가모니에게 한 그릇의 우유죽을 공양한 수자타의 이야기에서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찬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등불을 밝힌 어느 노파의 등공양이야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 득도하고 열반한

모든 장소에 10만금을 공양했다는 아쇼카왕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교 설화와 경전에서 공양과 그 공덕에 대해 설하고 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수보리는 미래세에 3백만의 나유타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면서 부지런히 섬기고, 항상 청정한 수행을 닦아 보살도를 갖추고 최후의 몸에서 성불할 것이니, 이름을 병상여래 응공 정변지·명행족·선서·세간해·무상사·조여장부·천인사·불세존 등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 성불의 여러 가지 인연 중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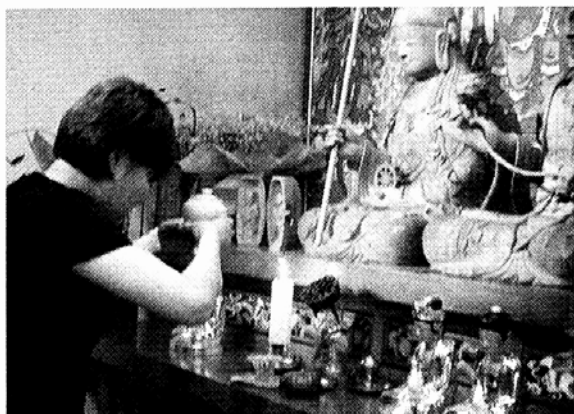
이같은 공양은 부처님 당시 스님들의 결식에서 처음 비롯되었는데, 교단이 확대되고 불탑이 건립되면서 중요한 신앙 행위로 굳어졌다. 공양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죽은 사람을 위해 바치는 공양을 추선공양(追善供養)이라 하며, 부처

님을 치하하는 공양을 개안공양(開眼供養)이라하고, 경을 공양하는 것을 개제공양(開題供養) 또는 경공양이라 한다. 또 불법삼삼보에 대한 공양을 불공양(佛供養), 법공양(法供養), 승공양(僧供養)이라 부른다.

중생이 부처님과 보살, 선인, 조

사경·음식·법공양 등
신행의례 활용 다양

상을 위해서만 바치는 것만 공양이 아니다. 부처님 또한 중생의 해탈을 위해 법공양을 베푼다.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 설한 모든 가르침이 바로 법공양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아미타부처님이 중생을 미혹에서 구제하기 위해 베푸는 법회는 연공양(緣供養)이라 한다.



공양은 부처님 당시 스님들의 결식에서 비롯되어 오늘날 중요한 신행의례로 자리잡았다.

공양의식은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단순히 불전에 차나 꽃, 음식물을 올리는 공양은 물론이거나 경전이나 법문집 등을 군부대나 오지의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법공양을 비롯해, 사찰 신도들이 함께 하는 사경공양과 열불공양,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찬탄하는 음성공양,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행하는 떡국공양, 국수공양 등 사찰과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양이 이뤄지고 있다. 사찰의 중요한 행사나 법회 때 직접 도량과 불단을 장엄하고 여섯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을 재현하는 육법공양회와 아미타부처님의 가르침을 춤으로 표현해 각종 법회에서 시연하는 아미타춤공연회 등은 공양의 의미를 극대화시킨 신행 의례의 대표적인 예다.

이은자 기자

미워하지 않고 비판하기

성숙해 간다. 다른 생각들을 허용하지 않거나 아예 회피해 버리는 사람들은 독단과 독선의 자폐증에 빠져 성숙과 발전의 길이 막힌다.

그러나 이견들의 경쟁과 각축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을 힘lendir. 서로 다른 생각과 주장들의 충돌은 그 자체로도 건강과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승패나 우열이 갈리거나 할 때면 개인과 인간 관계에 심각한 고통의 상처를 남긴다. 이견이나 진자 모두 다툼의 불편함과 후유증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견해들의 대립과 충돌은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간사를 피로 물들인 분쟁들은 대부분 크고 작은 이견(異見)들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던가. 아직도 해원(解冤)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종교 분쟁들, 문명 절망의 심연을 절감케 했던 좌우 이념 대립과 그 충돌은 이견 대립의 위험한 면모를 응연하고 있다.

회문 역시 서로 자기 견해의 실득력을 높여 정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진리에 접근한다. 그래서 학인들의 세계에서

부처님 無我의 도리
대립과 갈등 조정

입하는 마음의 자세이다. 미워하지 않고 비판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관건이다.

무아의 통찰을 밝히고 유지해 가는 공부에 눈떠 다른 견해들과 관계할 때마다 쟁기러고 노력하면, 그리하여 남을 향해 나를 날카롭게 세우는 '나'라는 관념의 성벽이 일순간에 해체된다. 그때는 힘겨워 울리던 의지를 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이견들을 대할 수 있다. 생명 소통의 따뜻한 정감도 유지하면서 비판을 받고 또 할 수 있게 된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길인가.

부처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미워하지 않고 비판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한다. '성념(成念)'이라는 타자 부정의 충돌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나와 다른 견해들'을 대하고 조정해 가는 힘을 키워야 한다. 도력(道力)은 그런 힘이 기도 하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lsan.ac.kr**



"오늘은 찌는 듯 무렵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한가하고 자재(自在)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마(魔)에게 어지럽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의 가고·머물고·앉고·눕는 속에서 '개'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話頭)가 한결같습니까? 움직일 때나 머물 때나 분별치 않을 수 있습니까? 꿈꿀 때와 깨어 있을 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치(理)와 사실(事)이 일치합니까? 마음과 경계가 모두 여여(如如)합니까?"

오늘 부산은 섭씨 31도가 넘었고, 지금 자정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더워서 소위 열대야(熱帶夜)를 맞고 있다. 이러한 더위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계절이 여름이어서 태양빛이 복판구에 수직으로 내리쬐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답한다면, 이것은 분별심의 소산으로 어려서든 이의 답일 뿐이다. 바로 지금 '찌·는·듯·무·덥·다'는 사실을 분별심으

'서장' 통한 선 공부 ②

더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로 대하지 않으면 바로 여기에 더위가 있고 동시에 근원이 있다.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더위에 머물러 있는 한, 나는 더위와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위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더위가 곧 나옴이 아니라 더위를 버리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 하나의 진실은 모양이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며 편안하고 자유롭다. 삼라만상 전부가 이 하나에 근거하여 나타나지만, 이것은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일상의 삶은 가고·머물고·앉고·눕고·말하고·침묵하고·움직이고·고요하고·잠자고·깨어있고·이치를 생각하고·사실에 접하고·내면의 마음을 느끼고·밖으로 대상을 접하고 하는 등등으로 수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지만, 이 모든 모습을 드러내는 근원은 바로 모양 없는 이 하나의 진실이다. 이른바 '화두(話頭)'란 모양 있는 것을 통하여 모양 없는 이 하나의 진실을 지시하는 '말'이다. 그 화두가 1700 공안 가운데 어떤 것이든 상관 없다. 모양 있는 언어로서 본다면 1700 가지가 모두 다르지만, 모양 없는 진실로 본다면 1만 가지 아니라 1700여 가지라고 하더라도 다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화두'를 분별심으로

유보학에 대한 답서

유보학에 대한 답서

이해하는 '말'로서 본다면 온갖 종류를 나누고 온갖 용도를 말하고 온갖 의미를 풀이할 수 있겠지만, 그 취지로서 본다면 '화두'는 다만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글을 읽고 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드러내는 모양 없는 하나의 진실일 뿐이다. 따라서 화두를 '무엇' 혹은 '어떤' 의미로 파악한다면, 그것은 늘 어긋날 뿐이다. 화두란 모든 의미 속에서 의미 없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화두는 어떤 '것'이 아니다.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 하나의 모양 없는 진실을 알고 나면, 어떤 것이든 무슨 물건을 말하더라도 상관없다. 어떤 것이든 무슨 물건이 이상 어떤 것이든 무슨 물건이

아니라, 이 하나의 모양 없는 진실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진실을 모를 때에는 단 한 마디를 말하더라도 아니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더라도 미혹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진실을 알고 나면 아무리 많이 말하더라도 늘 밝고 뚜렷하여 미혹됨이 없다.

그러면 이 하나의 모양 없는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의식하는 여섯 가지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이것은 드러나지만, 사람이 이들을 모양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알려질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을 아는 데에는 총명한 지능보다는 단단한 믿음과 가슴 깊이에서의 갈망이 더욱 필요하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과 진리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깨달음을 향함에 가장 중요한 힘이 되니, 바로 이것이 발심(發心)의 조건이다.



김태원 부산대 강사·철학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1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9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 | | |
|--------|--------------------------------------------------------------------|-----------------------------------------------------------------------------------------------------------------------------------------------------------------------|
| 1년 교과목 |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및 포교사상 · 포교방법론 |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문윤식(동국대교수) · 권만근(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중(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영수(문화재단연구원) · 홍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성(금강산원인사장) · 김로귀(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
| 2년 교과목 |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 임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병원(동국대교수) · 오근국(동국대교수) · 정병표(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경(승가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 · 강희숙(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3. 모집방법 및 전형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원서교부·접수 | 전형방법 | 강의일시 및 장소 | 비고 |
|--------------------------------------------------------------------------------|-------------------------------|-----------------------------------------|---------------------------------------------|-----------------------|---------------------------------------------------------------------------------------|-------------------------------------------|
| · 정규반 (100명) · 주간반 (50명) · 통산반 (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유리학과 (30명) | · 불교를 적극 · 신학고교자 · 하는 자 |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 2001년 6월15일~ 2001년 7월31일 입학료 150,000원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4시(유리충반) | · 통산반은 · 지방거주자나 · 출석수강이 · 어려운 자만 |

4. 입학일시 2001년 8월 4일(토) 오후5시(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리(조계사일)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상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불교 미술학교 · 우리 춤학과 개설

● 불교미술 개설 취지
불교미술에 대한 깊은이해와 함께 부처님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를 직접 그려봄으로써 불보살님에 대한 신심과 예경을 표현하고, 1600년의 한국불교미술에 대한 종합적인 심미안을 체득, 전법과 포교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교과목

| 이론편 | 인도불교미술, 중국불교미술, 한국불교미술, 동남아불교미술, 불교사찰, 탭, 불상, 회화, 단황미술, 고려미술, 조선미술, 티벳미술, 현대불교미술, 법화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
|-----|-------------------------------------------------------------------------------------------------------|
| 실기편 | 민화, 단청, 사천왕, 8부중, 팔상성도, 보살상, 부처상, 영산변상도, 정토변상도, 화엄변상도, 만다라 |

● 모집요강

- 입학일시 : 2001년 8월 4일(토) 오후5시
- 지원자격 : 불교미술을 통하여 불교신행하고자 하는자
- 모집인원 : 정규반 (30명)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 불교춤학과 개설 취지
우리의 몸 속에 면면히 흐르는 민족의 춤가락을 신명나게 배워 전통의 맥을 잇고, 불교의 사상과 몸짓이 만나 아미타부처님께 춤 공양과 깨달음의 길로 다가가는 과정.

● 지도교수 및 내용

| 교과목 | ① 우리춤 기본(몸놀림의 기본 토대 교육) ② 승무 기본(설행가락, 티벳가락, 국거리가락) ③ 작법 기본(춤의 기본 사위와 바라춤) ④ 복과 장단기법(복놀림과 우리 장단의 기본) |
|------|--------------------------------------------------------------------------------------------------------------|
| 지도교수 | 이애주 (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에는 보유자) |

● 모집요강

- 입학일시 : 2001년 8월 4일(토) 오후 5시
- 모집인원 : 정규반 (30명)
- 강의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문의전화 : 02) 732-1206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